

맞춤형 일자리 구축 나선다

익산시, 행안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 최종 선정 10억원 확보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시민을 배려하는 통합 일자리 서비스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최근 행안부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나서 일자리 지원 센터 활성화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시민을 배려하는 통합 일자리 서비스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10억 원(특별교부세 5억, 지방비 5억)을 투입, 2025년 하반기까지 통합일자리센터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센터는 남중동 익산시청 제2청사 건물을 활용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의 분산된 일자리센터를 통합해 종합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들은 청년·여성 등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한 곳에서 익산시의 모든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현을 시장은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컬버시 대표단, 익산시의회 방문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본회의장 견학 홍보동영상 시청

익산시의 자매도시인 미국 컬버시 대표단이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를 방문했다.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익산을 방문한 알베르트 베라 시장, 프레디 푸자 의원, 리사 사퍼스톤 자매도시위원회 회장 등 컬버시 교류단은 최중오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홍보동영상을 시청했다.

이번 견학은 컬버시 대표단이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를 방문했다.

최중오 의장은 "꾸려 40년 동안 우정을 나누어오기까지 협력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익산시와 컬버시가 더 좋은 친구가 되어 60주년,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과 애정을 갖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올겨울 독감·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 권고”

익산시, 만 65세 이상 10월 19일부터 독감·코로나19 동시 접종 가능

익산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에 나선다.

익산시는 19일부터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만 13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와 만 65세 이상(1958년 이전 출생) 어르신 임산부다. 해당 대상자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4월까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4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향은 익산시보건소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독감 예방접종은 기관별 접종 가능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 지원 대상자가 아닌 만 14~64세 익산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는 시 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증명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사업도 이어진다. XBB변이 기반 신규 백신이 준비됐다. 대상자는 만 12세 이상이다. 권고 대상인 만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오는 19일부터 권고 대상 이외의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독감 유행 주의보가 지난해 9월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는 고령층 치명률이 높아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국가 지원 대상자가 아닌 만 14~64세 익산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는 시 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증명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안전성 사전 대비 만전

익산시가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관리위원회는 18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장을 포함한 15명이 참여해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안전 대책 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관리 요원 배치 계획,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행사 개최 전날에는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회 의견과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북도 안전관리지문단,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앞서 실무진 사전회의를 거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 내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

정현을 시장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익산 대표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준비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중장기 철도정책 수립 연구용역 착수

군산시는 이날 중시 중장기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만금군산항만·공항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국제·국내 교통물류 여건 조성을 위한 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변화하는 국가 철도정책 방향에 맞춰 중장기 철도정책을 발굴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타당성 확보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연계해 시도 국가의 서해선~장항선~새만금선~군산목포선의 연결을 통해 서해안 중심 남북축을 완성하고 고속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며, 남원~전주~익산~남군산(육산)~새만금까지의 전북권 내륙 광역철도망 등을 발굴·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철도분야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

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는 이에 발맞춰 전북권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서부권역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문 연다

익산시가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 준비에 한창이다.

예산 4억 2000여 만 원을 투입해 건강관리실과 원스톱 기초체력측정실, 주민참여 동아리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실 등을 갖추게 된다.

반영하기 위해 주민 436명을 상대로 서부권역 현황분석과 건강 요구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 온 바 있다.

익산시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내년 2월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 달 개보수 공사에 착공해 12월 준공 철차를 마칠 계획이다.

센터는 주민 요구가 담긴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미취학 아동(어린이 건강체력) △성인(심뇌혈관 관리·비만 관리) △노인(치매 예방 관리) 등 생애주기별 주요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 등 10개 기본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센터는 특히 사업으로 정복 초·중·고 어린이 건강체력관을 운영한다. 건강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6개 테마(성교육·손씻기·구강보건·식품영양·신체활동·금연금주예방)를 구성해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송학동 푸른솔커뮤니티센터 건물 3~4층에 총면적 729.42㎡(221평)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앞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농산물판매 온라인마케팅 교실 운영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및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전산교육장에서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 온라인마케팅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는 꿀, 잡곡, 고구마 등 농산물과 미니파스타, 조청, 선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6명의 농업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상품별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를 초빙, 집합교육 및 1:1 농장주 컨설팅 과정을 거쳐 라이브방송 판매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온라인시장에 대한 이해, 상품별 판매전략, 라이브방송 진행방법, 방송장비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가동

군산시는 오는 11월부터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출동 시 차량 위치를 추적해 교차로 진입 전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신호를 제어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확보된 국비 40억원 중 2억원을 투입해 진행했다.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1단계 시범운영으로 시 전역에 있는 신호 교차로 371개소에서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며, 오는 2024년부터 시 전역 401개소 신호 교차로에서 2단계 본격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